

先進國을 指向하는 NICS의 課題와 展望

아시아 신흥공업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즉 NICS는 1986년에 들어서자 3低 현상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대만그룹과 홍콩·싱가폴 그룹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그룹의 분화현상은 산업개발정책의 차이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대만은 3低현상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NICS의 대미수출에 비례하여 대일 무역적자가 증대된다는 산업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어 美·日·NICS의 국제적 네트워크화가 전개되어야 하며 이에는 일본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4마리의 龍에서 2마리의 龍으로

미국의 경제전문주간지 비즈니스위크誌는 「처음 4마리였던 龍이 지금은 2마리로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미국이 「4마리의 龍」이라고 불렀던 아시아新興工業國(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하 NICS로 생략함)도 현재는 한국, 대만그룹과 홍콩·싱가폴 그룹으로 兩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NICS는 1985년에 있는 미국의 경기후퇴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1986년에 들어서자 原油가격 하락, 달러高 是正, 金利引下 등 「3低現象」에 따라 수출이 호전, 對美輸出擴大를 발판으로 다시 경제성장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3低現象」은 한국과 대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홍콩 및 싱가포르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았으며 미국이 「2마리의 龍」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2極分化現象이 초래된 것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그룹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경제, 무역구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의 산업개발정책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먼저 싱가폴은 1979년 이후 하이테크(첨단기술)重視의 산업정책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高賃金政策을 취해왔으며, 이에 따라 國際競爭力이 低下하여 經濟成長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85년은 建国20년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했고 1986년의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또 싱가폴의 경우 總輸出의 약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市場이 原油가격 하락과 1차產品價格 침체에 따른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싱가폴 經濟도 이의 不況余波를 입고 있다.

홍콩도 1985년의 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져 한국, 대만과의 성장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싱가포르 이상으로 中繼港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공이 最大市場으로서 홍콩經濟를 좌우하고 있어 불안하다. 198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중공의 輸入抑制政策이 홍콩의 무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또 홍콩의 현지산업의 수출은 對美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말하자면 홍콩, 싱가폴은 自國市場이 대단히 좁고 他國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쉬운 都市國家로서의 制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986년에 들어선 「3低現象」이라는 順風을 맞은 한국, 대만과의 격차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3低現象을 享有하는 韓國과 台灣

한국과 대만은 현재의 「3低現象」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여 경기회복이라는 파도를 타고 있다. 먼저 이들 두나라는 모두 對美 輸出依存도가 높지만 각각 通貨가 거의 달러에 連動되어 있기 때문에 1985년 9월이후의 달러高 是正에도 對달러 환율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85년 5월과 1986년 5월의 달러에 대한 각국 환율변화(IMF방식)를 算出해 보면 한국(-2.1%), 홍콩(-0.4%), 싱가포르(+0.3%)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G5(先進國 5개국 財務長官會議)이후의 달러高 是正, 엔高라는 상황하에서 對美輸出價格 競争面에서 일본에 비해 이들 두나라는 유리해졌다. 사실 1986년 상반기 아시아 NICS의 對美 輸出은 好調를 보여 미국수입통계에서 본 수입신장률(전년동기비)은 한국 21.1%, 대만 10.2%, 싱가포르 2.1%, 홍콩 1.3%로 한국과 대만은 큰 신장률을 보였으며, 1986년 상반기의 對美 수출에서도 2極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NICS와의 무역수지도 악화하고 있으며 1986년 상반기에 對아시아 NICS의 총무역적자는 128억弗(전년동기비 21.5%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對아시아 NICS 수출이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비 마이너스를 나타낼 정도로 부진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만의 對美 수출의존도는 50%에 달하여 對美 貿易黑字는 1985년에 100억弗을 기록했고 1986년에는 上半期만도 65억弗 이상으로 증대, 8월 말의 外貨保有高는 350억弗로 부풀어 올랐다.

한국도 40% 가까이 對美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對美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 1986년의 경제성장은 10%정도를 예상하고, 나아가서 1986년에는 史上 최초의 經常收支黑字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의 對外債務 殘高는 468억弗(1985년말)로 세계 제 4위의 債務國이지만 金利低下에 따라 債務償還 負擔은 輕減되어 이러한 점에서도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外貨導入에 의한 輸出指向工業化路線의 成功

아시아 NICS의 經濟成長 속도는 실로 눈부시며 지금까지 世界의 주목을 받아왔다. 1973~1983년의 연평균GNP成長率을 보면 싱가포르 8.2%, 홍콩9.3%, 한국7.3%로 한결같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기간중 일본의 經濟成長率은 4.3%). 또 輸出도 동기간중에 한국 14.8%, 홍콩 10.3%로 순조로이 확대됐다. 아시아 NICS가 세계수출에 차지하는 몫도 85년에는 世界의 6.3%를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해의 일본의 수출몫은 9.3%이기 때문에 아시아 NICS의 수출은 일본의 약70% 정도까지 성장해 왔다고 할 수가 있다. (表 1)

表1 아시아 NICS의 世界輸出에 차지하는 몫의 推移 (單位: %)

年度	韓國	香港	台灣	싱가포르	아시아 NICS 計
1965	0.1	0.6	0.2	0.5	1.4
1970	0.3	0.8	0.5	0.5	2.1
1975	0.6	0.7	0.6	0.6	2.5
1980	0.9	1.0	1.0	1.0	3.9
1985	1.6	1.7	1.7	1.3	6.3

資料: IMF-IFS, 台灣은 Taiwan Statistical Yea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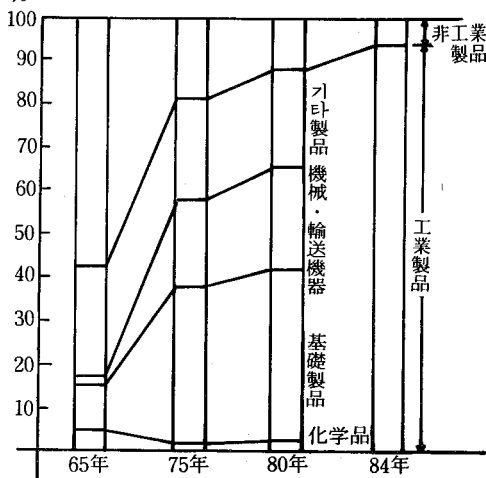
아시아 NICS의 이와 같은 성장은 長期的인 政治의 안정, 테크노크라트의 존재, 높은 교육

수준 등 경제발전을 위한 初期条件이 갖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輸出指向型 工業化정책을 각국이 취해왔다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 말하자면 当初 1950~1960년대 初期까지의 아시아 NICs의 工業化政策은 다른 開途國과 마찬가지로 輸入代替를 피하는데서부터 출발했으나 이들 各國이 모두 그들이 갖는 시장의 狹小라는 制約에 따라 1960年代 後半부터 輸出指向型 工業化로 方針을 轉換하게 된다. 그리하여 輸出增大에 의해 設備投資 擴大가 進行된다는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의 好循環에 따라 무역을 「成長의 엔진」으로 보고 不足한 자본, 설비와 기술을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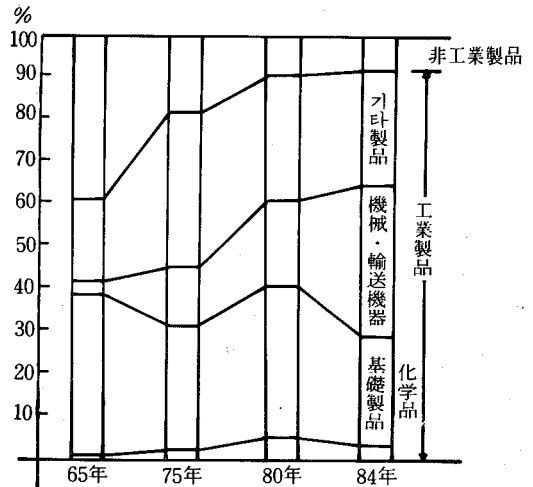
극적인 外資導入으로 補完하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자본, 기술의 공급국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馬山, 台灣의 高雄에 설치된 輸出加工區는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外資政策에 따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각각 달성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外國投資受容 累計額의 업종별 내역 推移를 보면 1973년말에는 製造業 가운데 纖維관련이 29.3%를 차지하고 있으나 1977년말에는 23.7%, 1982년 6.9%, 85년 4.9%로 이 비율은 두드러지게 저하하고 있다. 한편 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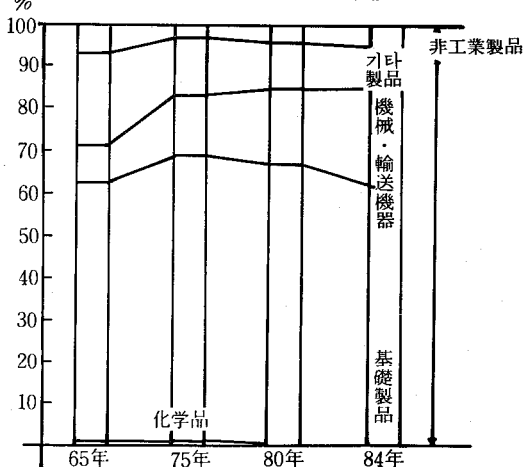
그림 1 아시아 NICs의 輸出構造 高度化
1-1 台灣의 輸出商品 構成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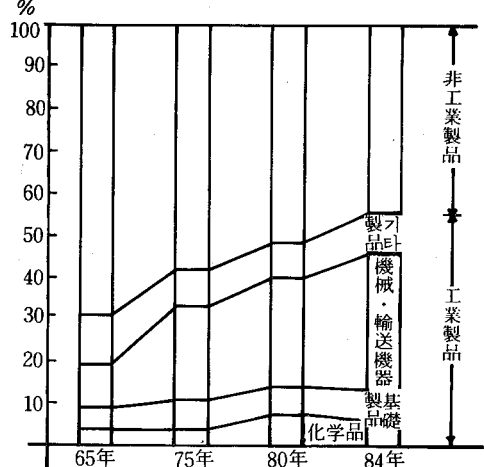
1-2 韓國의 輸出商品 構成推移



1-3 香港의 輸出商品 構成推移



1-4 新加坡의 輸出商品 構成推移



械工業은 1973년부터 1985년에 걸쳐 5.4%에서 16.9%로 증대하고 있으며 外資導入面에서도 重化学工業化의 進展을 엿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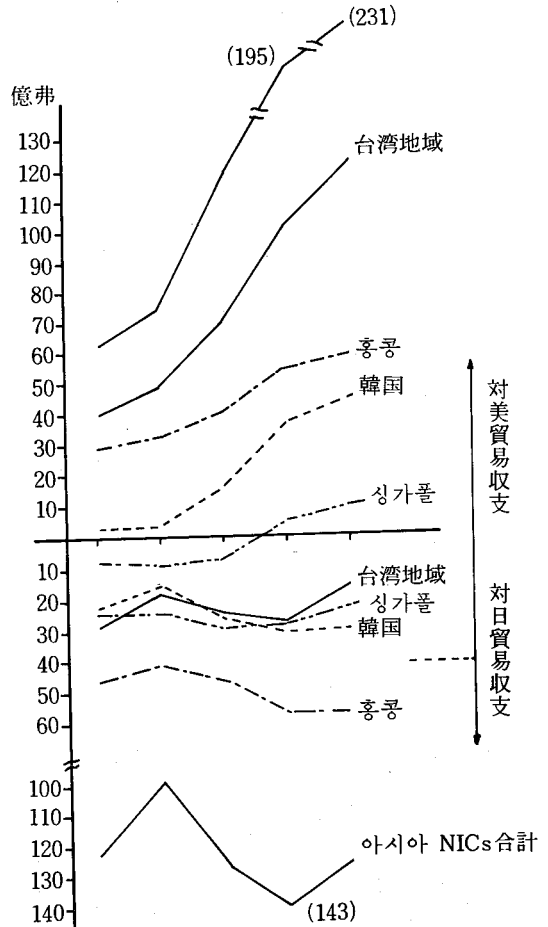
또 아시아 NICS의 輸出商品構成의 推移를 보아도 1960年代로부터 1980年代에 걸쳐 工業製品 輸出 비율을 착실히 높이고 있는 등 貿易構造의 高度化가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특히 최근에는 機械, 輸送機器의 畵어가 높아지고 있으며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의 脫皮도 얼마 안 되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NICS의 共通된 開發戰略인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은 중요한 Factor이긴 했으나 보다 자세하게 보면 아시아 NICS, 각국의 발전 방법, 산업·기업구조, 경영양식 등에서 서로가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그 차이가 21세기의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制約이 되기도 하고 利點이 되기도 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2마리의 龍」인 한국과 대만을 봐도 한국은 「富國政策」, 대만은 「富民政策」이라는 經濟政策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造船, 鐵鋼, 化学, 自動車 등과 같은 大規模工業 육성을 지향하여 財閥을 중심으로 輸出優待政策을 취해왔다. 이와 같은 開發資金을 외국으로 부터 借入했기 때문에 對外債務殘高에서 세계 제4위의 債務國이 되었다. 한편 대만에서는 중소기업경영을 주축으로 개인의 企業家 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發展過程을 취해 왔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金融·財務面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健全하다. 技術導入의 Pattern을 봐도 한국이 70년대초부터 외국으로부터 重化学분야의 대형 技術導入을 꾀하는 한편 대만은 당초에 소형기술에서부터 출발, 서서히 대형의 技術도입을 꾀해 왔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도 한국, 대만의 公業化, 발전과정의 차이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래의 모습도 「한국은 제2의 일본을 지향하여 대만은 아시아의 스웨덴 내지 스위스를 지향한다」 (Asian Wall Street Journal)고 表現할 정도로 國家중심의 한국과,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제1목표로 두는 대만과는 차이가 있다. 또 都市國家인 홍콩, 싱가포르의 經濟의 소프트화를 추진, 하이테크基地, 情報·技術센터, 金融센터

와 같은 進路를 選擇하고 있으며 韓國과 대만은 서로 다른 經濟路線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2 아시아 NICS의 對美, 對日 貿易收支 推移
아시아NICS合計



資料 : 對日收支는 外國貿易概況,
對美收支는 美國商務省 (JETRO BDC 시스템)

4. 産業基盤의 脆弱性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그러나 아시아 NICS의 産業基盤은 아직도 脆弱性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NICS의 對美 輸出이 擴大되면 될수록 對日 貿易赤字가 악화한다는 現象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즉 對美輸出하는 家電, 機械 등과 같은 工業製品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工作機械 등과 같은 mother machine과 주요 中間財, 대부분의 部品을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限界點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VTR 등과 같은 전자, 機械 등과 같은 高品質의 部品에 대해서는 한국, 대만의 현지기업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2는 아시아 NICS의 對美, 對日 貿易収支를 나타낸 것인데 아시아 NICS는 對美 貿易収支가 黒字, 對日 貿易収支가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의 NICS의 貿易構造上的 限界와 對日 12億 3,900만弗 (前年同期比 47.7% 증가) 한국 26억 3,300만弗(80.3% 증가), 싱가포르 13억 8,500만弗(22.7% 증가), 홍콩 28억 8,200만弗(4.5% 감소) 등 홍콩을 제외하고 급격한 恩高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다(일본측 通関統計 베이스). 이와 같은 赤字幅의 확대는 일본의 對美輸出이 어떠한 의미에서 아시아 NICS 經由의 輸出에 의해 代替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 NICS의 産業基盤 脆弱은 앞으로 21세기를 겨냥했을 때 아시아 NICS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급속한 기술 혁신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技術力이 있는 相關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RED(개발연구)의 자율적인 진보가 일어나기까지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財閥 중심이었던 한국정부도 최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산업을 어디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래의 일본과 아시아 NICS의 國際分業體制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21世紀 비전을 発表

21세기까지 앞으로 15년을 남기고 있을 뿐이지만 최근 한국, 대만이 잇달아 2,000년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은 1985년 9월에 韓國開發研究院이, 또 대만은 1986년 3월 經濟建設委員會가 이를 公表했다. 韓國의 비전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6.9%로 잡고 2,000년時点的 GNP를 현재의 3배로, 1인당 GNP를 5,000弗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만의 비전은 경제성장률을 6.5%로 잡고 GNP는 2.5배

1인당 GNP는 8,000弗을 예상하고 있다. 産業構造는 한국이 GNP에 차지하는 農林水産業의 비율을 84년의 14%에서 7.5%로 低下, 鉱工業部門은 30.4→33%로 서비스部門은 55.6→59.5%로 증대한다고 책정한데 대해 대만은 GNP의 49.7%를 차지하는 工業部門의 비율이 46.5%로 低下하고 한편 서비스部門은 44.3→50.3%로 상승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總輸出의 연평균 신장률도 한국 8.1%, 대만 6.1%로 전망하고 있으며 21世紀에서 先進國으로 돌입한다는 야심적인 비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전대로 한국, 대만이 성장하는데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人件費 上昇에 의한 國際競争力の 低下, 纖維 등과 같은 勞動集約産業에서 다른 開途國의 추격, 先進國의 低成長과 保護貿易主義의 壓力, 하이테크技術의 導入과 研究開發體制의 整備 등과 같은 수많은 難關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새로운 轉換點에 접어들었다는 認識도 당연히 이 비전을 감안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經濟成長路線에서 하나의 道標가 될 것이다.

6. 美国·日本·아시아 NICS의 國際的 Network의 展開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 급속히 아시아를 생산거점으로 하는 방향으로 크게 기울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NICS에 대한 美國企業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業種別로는 半導體 등과 같은 전자와 자동차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長期間에 걸친 달러高에 의해 美國製造業이 아시아 NICS로 生産拠點을 移轉했음을 뜻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 NICS의 生産拠點으로부터 美國으로 逆輸入한다는 이른바 海外調達(Out Sourcing)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의 對美수출은 1982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나 이 시기의 대만이 美國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을 보면 1982년 7,961만弗, 1982년 9,329만弗, 1984년 3억 3,276만弗로 수출확대와 같은 추세로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대만으로부터의 해외조달(Out Sourcing) 전략의 定着을 말하는 것으로 흥미가 깊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아시아 NICS는 G5이전부터 이미 中間財의 공급기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일본의 아시아 NICS로부터의 製品輸入推移를 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착실하게 제품수입, 中間財 輸入은 擴大하고 있으며 水平分業 관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NICS에 일본기업이 종전보다 더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9월의 G5 合意 이후로 볼 수가 있다. 급속한 엔高와 이의 定着은 일본의 産業構造 轉換과 같은 면에서도 결정적인 impact를 주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NICS와의 국제분업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즉 엔高에 의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商品을 아시아 NICS로부터의 輸入에 代替하고 또는 生産 拠点을 옮겨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의 逆輸入도 계획하는 등의 해외전략을 일본기업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大企業만이 아니라 中小企業까지 포함한 일본기업에 의한 이와 같은 海外戰略의 展開는 일본과 아시아 NICS사이의 국제분업을 더욱 진전시켜 아시아 NICS로부터의 製品輸入을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사실 1986년 상반기의 아시아 NICS로부터의 製品輸入을 보면 化学品과 鉄鋼의 中間財, 컴퓨터, 家電 등과 같은 품목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업과의 分業體制가 진전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서 자동차 등과 같은 기간산업에서도 일본과 아시아 NICS와의 分業體制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한국의 財閥系 企業과 提携하여 생산을 시작한 韓國製 小型車 포니는 1986년 7월에는 월간 2만 5,000대가 對美 輸出된 정도로 되어 있다. 더우기 이 포니의 주요부품은 일본메이커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韓·日間의 제휴가 기업수준에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 NICS와 일본 장래의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美國企業은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초에 걸쳐 아시아 NICS를 수출·생산기지로 하여 활용

한다는 戰略을 세워 직접투자와 OEM(발주자 브랜드제품) 등을 통해 海外調達을 진행시켰다. G5 이후의 달러高 수정국면에서도 NICS 通貨가 달러에 대해 거의 변화되지 않았고, 나아가서 해외조달(Out Sourcing)이 바야흐로 美國企業의 經營方針 美國經濟 自体에 編成되었기 때문에 이 경향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기업으로서는 아시아 NICS와의 제휴를 보다 緊密化시켜 일본과의 競合에 싸워 이겨 自社의 利潤 極大化를 꾀하는 방법을 摸索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企業수준에서는 아시아 NICS를 둘러 싸고 美 日의 競合과 협력, 合從連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企業行動에 의해 미국-일본-아시아 NICS의 국제적 Network는 國際分業 利益의 極大化라는 經濟原則에 맞춘 형태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7. 거세지는 미국의 市場開放壓力과 開途 國의 추격

이 지역에서의 國際的 Network 展開를 보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아시아 NICS와의 사이에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무역마찰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아시아 NICS는 對美 輸出擴大를 「成長의 엔진」이라고 말해 왔으나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미국내에서는 保護貿易主義 壓力이 유럽, 일본으로부터 아시아 NICS로 향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섬유·신발법안(첸킨스 법안)을 들 수가 있다. 이 법안은 EC 諸國과 캐나다를 제외한 아시아 諸國을 대상으로한 差別色이 강한 것이며, 保護法案의 典型的인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1986년 8월, 레이건 大統領의 拒否權이 성립되어 廢案이 되긴 했으나 同法案의 壓力을 배경으로 미국측은 아시아 등의 開途國과의 新MFA(多者間 纖維協定)교섭에서 대단한 고자세로 임하여 결과적으로 종전보다는 더 규제색이 짙은 내용으로 MFA도 결말이 나게 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市場開放, 知的所有權 保護, 保險分野 등에서 미국은 강력한 압력을 가했고 대만에 대해서도 關稅引下, 輸入절차 간소화 내지는 진출外資에 대한 輸出義務化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무역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G5이후 처달러 환율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아시아 NICS의 通貨환율 調整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문제시하기 시작하는 등 요구는 그칠줄을 모른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회의 압력, 11월의 중간선거, G5이후에도 계속 확대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미국내의 요인이 숨어있으나 미국의 산업이 차츰 일본이나 아시아 NICS로 전환되는데서 오는 焦燥感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 NICS의 성장으로 지금까지 輸出擴大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GSP(일반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해서도 미국은 차츰 범위를 좁히는 방향에 있으며 이와 같은 「卒業」문제가 아시아 NICS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美国 上下院合同 經濟委員會가 8월에 발표한 「環太平洋諸國의 經濟變化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단 보고서에서도 미국무역구조의 비중이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아시아·太平洋지역이 앞으로 중요한 國際貿易의 舞台가 된다고 인정하고 미국정부의 지금까지의 경제, 통상정책이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先進國의 「卒業」을 촉구하는 압력에 더하여 노동집약산업분야에서는 다른 개도국의 추격으로 경합이 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先進國과 開途國의 挾擊을 받고 있는 셈이지만 어떻게 신속하게 산업, 무역구조를 고도화하여 「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지 아시아 NICS의 眞價를 묻는 시기에 와있다.

8. 아시아 NICS의 成長課題와 日本의 역할

세계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서 아시아 太平洋圈은 장래의 潜在的 성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시아 NICS의 착실한 발전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低成長과 保護主義化에 대한 움직임은 고려하면 앞날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이 15~20년에 걸쳐 대응해온 미국의 「시장개방」압력도 아시아 NICS의 경우는 극히 短期間에 이의 対応을 촉구받고 있다. 스스로의 산업구조고도화를 피할 여유도 갖지 못한채 새로운 業態로의 대응을 맞고 있는데 이 경우 중요한 키를 쥐는 것이 일본이다.

지금까지의 아시아 NICS의 발전에 대해서도 일본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하여 앞으로 아시아 NICS가 先進諸國으로서 커질 것인가도 일본과의 관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무역,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본과 아시아 NICS와의 相互依存關係는 진밀해지고 있으며 일본·미국 아시아 NICS의 Network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아시아 NICS의 급속한 Catch up에 대해 부메랑 効果를 우려하고 있는데 아시아 NICS각국의 수요의 고도화가 일본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는 「플러스의 부메랑 효과」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분업도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韓·日의 鐵鋼業에서는 스테인레스 등 일본의 高附加價値品을 對韓輸出特化하고 한편 韓國은 普通鋼이나 볼트·너트 등과 같은 低價格帶에 對日輸出特化한다는 製品差別分業을 볼 수 있다. (通商白書)

日本의 경제규모와 아시아 NICS의 규모를 비교하면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 예를 들면 1985년의 한국의 수출액 264억弗, 대만의 305억弗에 비해 일본은 1,756억弗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이웃에 「先進國」이 육성되고 분업의 메리트를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본으로서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기업수준에서는 G5 이후의 엔高 定着에 대응하여 아시아 NICS와의 提携가 진전되고 있다.

아시아 NICS의 성장을 촉구하기 위해 日本市場의 開放, 技術移轉, 直接投資를 촉진하는 것이 日本産業構造를 「國際協力型」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世紀의 아시아 NICS의 성장과제는 동시에 日本의 課題로 되어 있다.